

2022년 세계시민교육 중앙연구회 분과연구모임 결과 보고서

분과연구모임명	꿈꾸는 곰비임비
대표교사 (소속)	대전양지초등학교 서보라
회원교사 (소속)	대전만년초등학교 양지혜, 시흥월곶초등학교 문정민, 광주두암초등학교 박세은, 광주태봉초등학교 안영란, 대구동덕초등학교 김향숙

일정	수행 내용	관련 사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관련 도서 읽고 수업안 작성 및 적용 (봉주르 뚜르, 평화는 어떤 걸까?, 적, 봄의 초대 평화는 무슨 맛일까?) ● 수업에 대한 성찰 및 상호 피드백, 수업안 수정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관련 도서 읽고 수업안 작성 및 적용 (거짓말 같은 이야기,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세요, 파란 벽, 그 공 차요!, 오, 미자!,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 씨) ● 수업에 대한 성찰 및 상호 피드백, 수업안 수정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동물권’ 관련 도서 읽고 수업안 작성 및 적용 (돈가스 안 먹는 아이, 칩 벨으며 인사하는 나라는?, 토마토 나라에 온 선인장 / 내일의 동물원,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 멋진 하루) ● 수업에 대한 성찰 및 상호 피드백, 수업안 수정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관련 도서 읽고 수업안 작성 및 적용 (플라스틱 섬, 굴뚝 이야기,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 매뚜기 탈출 사건, 눈보라, 쓰레기책) ● 수업에 대한 성찰 및 상호 피드백, 수업안 수정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교육 수업 자료집 작성 	

연구산출물	
산출물 형태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과정안((PDF)
내용 요약 (필요시 사진 첨부)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동물권, 환경 주제의 책 소개 및 책을 활용한 총 24개의 수업 지도안

연구 소회 및 기타 의견
<p>서보라 선생님 세계시민교육을 심도 있게 해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서 분과장을 맡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교사용 도서도 읽고 수업안도 짜보면서 그동안 모르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1달에 1번 비대면으로 선생님들을 만나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고, 좋은 그림책을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다. 분과 연구회가 끝나고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림책으로 계속 세계시민교육을 할 예정이다.</p>
<p>양지혜 선생님 매달 지도안을 짜고 선생님들과 일과 외 시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역도 다르고, 연령층도 다양한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이 모임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받을 수 있었다. 분과모임을 통해 나 자신을 반성하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p>
<p>문정민 선생님 개인적인 사유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지도안을 보며 수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짧은 시간만이라도 나 혼자 수업을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닌 다른 선생님들과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p>박세은 선생님 일단 지도안 쓰는 것 자체가 많은 생각을 요하는 작업인데, 매달 꾸준히 한 가지 책을 정해서 써 보니 수업력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그림책 논의를 통하여 그림책 보는 안목도 기르고, 좋은 수업 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월 7월 등 학기초와 학기말은 활동 자체가 벅찰 때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다음번에 이런 연구회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림책 이외에도 세계시민교육 방법적인 팁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p>

좋겠습니다.

김향숙 선생님

바쁜 일정 속에서 진행된 분과 모임이었지만 시간을 쪼개어 같은 목적을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음이 순간순간 고마웠고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음이 신기하며 놀랍다고 생각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

늘 허덕이며 분과의 일정을 쫓아가기 바빴지만 좋은 책도 많이 읽었고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수업을 위해 고민하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는 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며 알찬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이리저리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분과 모임이었습니다. 열정 가득한 우리 분과 대표님의 일 추진력과 수고에 큰 박수를 보내며 함께 한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